

<국문요약>

지식기반사회로의 도입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적자원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은 높은 문맹률과 기초소양지식의 부족으로 초·중등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적 지원 또한 초·중등교육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 및 자립을 위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고급 인적자원을 생산하며, 연구를 통해 개도국의 지식을 발전키시며,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개도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제한하는 제약사항인 고등교육 기관의 부족, 교원 수급 부족, 고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함으로서 개도국 또한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일원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국제사회는 고등교육 발전의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디어, 통신매체의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먼저, 미디어, 통신매체는 교육에 있어 학습자와 교수자(혹은 교육 자체)와의 물리적, 시간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적 거리를 매개해줌으로서 고등교육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둘째, 교수학습과정이 구조화됨으로서 다수에게 일정한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다수에게 원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은 재구성 및 구조화된다. 따라서 양질의 교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육기관마다 교육의 질이 상이한 개도국의 경우, 교육의 질 통제 및 유지의 수단으로 미디어, 통신매체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및 비형식교육을 지원함으로서 개도국의 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로 KOICA가 미디어, 통신매체를 활용한 고등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협의 및 여러 검증 과정을 통해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르완다를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문헌조사, 면담, 현지조사, 전문가 협의의 과정을 거쳐 각 국가에서 미디어, 통신매체를 고등교육에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 때, 세부적으로 도입 모델, 매체, 전공, 지역사회 기여 모델의 4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우간다의 경우 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1-2015) (NPA, 2008)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원격대학 설립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마케레레 대학은 1991년부터 External programme을 운영하여, 현재 5개 전공

에서 원격으로 학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4, 5세대(인터넷, 모바일 기반 원격교육)로의 진입을 위해 NORAD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현지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모델로는 ‘기존 고등교육기관에서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고등교육기관 부설 모델)’, 매체로는 ‘우편, 라디오, 텔레 컨퍼런싱’, 전공으로는 ‘(교육, 농업) 정보통신, 컴퓨터과학, 경영’, 지역사회기여 역할로는 ‘교사연수, 지역사회교육’을 제안하였다.

르완다는 1994년 발생한 대학살(Genocide)의 피해를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우간다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 및 원격고등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르완다는 원격 고등교육(Open and distance learning)에 대한 로드맵인 ‘College of Open and Distance Learning in Rwanda’를 수립하여, 최근(2014) 합병된 르완다 대학의 사범대학(College of Education, COE, 전 Kigali Institute of Education)에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르완다 대학의 COE는 Distance Training Program(교사대상), Tele-education(인도대학 원격학위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African Virtual University와의 재 협력을 위한 센터(Center for AVU)를 최근 설립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현지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모델로는 ‘기존 고등교육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고등교육기관 부설 모델)’, 매체로는 ‘인터넷, 모바일’, 전공으로는 ‘교육, 농학, 정보통신, 컴퓨터과학’,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역할로는 ‘교사연수, 지역사회교육’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환경(짧은 현지조사 기간 및 해당 국가의 협조 문제, 아프리카와 고등교육, 원격교육을 아우르는 전문가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관점에서 원격 고등교육을 조명하였고, KOICA에서 향후 관련 사업 전략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반 연수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간다와 르완다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업 도입 방안을 제시하여, 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립 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